

# 법정 소송으로 번진 섬진강 댐 용수 사용료

### 수자원공사 "주암댐물 합류 감면 대상" vs 광양시 "섬진강하천수 징수 당연" 행정심판 이어 부가처분 취소 소송 비화... 입장 팽팽히 맞서 법원 판단 주목

광양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섬진강 댐 용수 사용료를 놓고 법정공방에 들어갔다.

"하천수 전제가 사용료 징수 대상"이라는 광양시 주장과 "댐에서 방출한 물은 감면 대상"이라는 수자원공사의 입장이 맞서면서 행정심판에 이어 소송으로 번졌다.

13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최근 광주지법에 광양시를 상대로 '하천수 사용료 부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는 1976년 광양시 다압면에 다압취수장을 설치한 뒤 섬진강 하천수와 주암댐에서 방류한 댐 용수 등을 취수해 광양시·여수시·광양제철·여수국가산단 등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물값을 받아왔다.

광양시는 물 사용료를 받지 않다가 지난 2017년 10월 하천법 제50조 5항을 근거로 2013~2016년 분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 3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수자원공사는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광양시는 하천수 사용료 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4월 주암댐에서 취수한 물도 사용료 대상이라며 2014~2015년분 사용료 30억원을 부과했다.

수자원공사는 30억원을 납부한 뒤 댐에서 취수한 물은 감면 대상이라며 지난해 7월 사용료 부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냈다. 행정심판에서는 광양시의 사용료 부과가 정당하며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31일 광주지법에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액 규모는 19억여원에 달한다.

수자원공사는 매년 다압취수장에서 8400만톤의 물을 취수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해 연간 7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다압취수장의 1일 취수 용량은 40만인데 수자원공사는 댐에서 나온 물은 하천법에 따라 감면 대상



수자원공사는 다압취수장에서 섬진강 물을 취수해 광양시와 여수시, 광양제철, 여수국가산단 등에 판매하고 있다. 사진은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죽천마을의 다압취수장. <광양시 제공>

이라고 주장한다.

수자원공사는 "다압취수장은 댐에서 방류한 물과 하천수가 모이는데 댐에서 나온 물은 엄연히 감면 대상"이라며 "댐 건설에 들어간 공사비와 유지비 등 각종 비용을 회수하는 의미에서 감면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광양시는 "섬진강 물을 하천수와 댐 용수로 구분할 수 없다"며 "수자원공사는 매년 섬진강에서 물을 취수해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학사농업인 경영 자금 광양시, 저리 융자 지원

농지 구입비 등 연 1% 최대 2억원

광양시는 미래 첨단농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2020년 학사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업인 중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대학교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또는 비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학사농업인이다.

학사농업인에게는 농지 구입비와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과원조성을 위한 비용 등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 1%,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이삼식 광양시 농업지원과장은 "경영자금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광양의 미래 기술농업을 이끌어 갈 젊고 유망한 농업인을 육성해 영농정책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여수시·남해군 해저터널 예타 통과 힘 모은다

### 영·호남 숙원사업 공동대응 약속

국내 대표 해양휴양관광도시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에 공동 대응키로 하면서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와 남해군은 국도 77호선 해상 구간에서 유일하게 연결되지 못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일 여수시청을 방문한 장충남 남해군수와 권오봉 여수시장의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키로 약속했다.

이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영호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여수시 삼일동과 경남 남해군 서면은 잇는 77호선 7.31km 해저터널(터널구간 5.93km : 해저 4.2km, 육상 1.73km)이 건설될 경우 통행시간이 80분(52km)에서 10분(7.3km)으로 단축돼 물류비용 절감,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수요 대처 등 해양관광벨트 기반이 구축된다. 사업비도 교량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6312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영역에서 남해-여수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권오봉(오른쪽) 여수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가 지난 9일 여수시청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여수시 제공>

등을 분석한 후 종합평가(AHP)를 실시한다. 양 지자체는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끝낸 후 도로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 및 고시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영호 여수시 도로계획관리팀장은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여수시와 남해군

실무진들이 국회·기재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해 여수-남해 해저터널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 시·군이 더욱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양 시·군은 물론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영주 경남지사도 이 사업에 힘을 합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로 여수-남해 등 남해안권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영호남 교류 및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옛 여천역사 시민 품으로...선원프레공원 완공

### 역사 리모델링·광장 조성...놀이터·체육시설 들어서

옛 여천역이 선원프레공원으로 조성돼 시민 품에 안겼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라선 옛 철길공원 1단계 사업구간인 선원동 옛 여천역 역사 부지에 선원프레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했다.

선원프레공원은미평공원에 이어 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으로, 역사를 리모델링하고 광장을 조성해 숲속모험 어린이놀이터와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섰다.



전라선 옛 철길 여천역사 부지가 선원프레공원으로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됐다. <여수시 제공>

남부 아열대 상록수종인 먼나무와 꽃잔디 등 계절 꽃을 심어 휴일과 주말에는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쉼터로, 자전거 라이딩과 산책 중에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시는 만흥공원-울촌조화공원까지 8개 공원에 21.4km의 전라선 옛 기차길 공원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8년까지 6개 공원 16.1km의 자전거길과 산책로, 미평공원 역사 부지 공원 조성을 완료했다.

2단계 사업인 양지바름-대포-울촌조화공원 구간

은 현재 시설설계 용역 중이며, 올해 옛 덕양역 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및 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해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철길공원 만족도가 높은 만큼 1단계 사업구간은 시민들의 안락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2단계 사업구간도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061)322-6183